

 국토교통부		<b>보도참고자료</b>	
		배포일시	2019. 10. 8.(화) / 총 2매(본문2)
담당 부서	주택정책과	담당자	·과장 이명섭, 사무관 임유현 ·☎ (044) 201-4129
보도일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## 현 정부 들어 과거보다 무주택·실수요자 및 저소득가구를 위한 주거지원은 확대되고 있습니다.

□ PIR\*은 통상 중간 수준의 소득과 주택가격으로 산정하며, '16년 이후 전국 PIR은 4~5 내외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

\* 보도된 자료는 소득 1분위와 평균 아파트가격을 기준으로 비교하였으나, PIR은 통상 중간 수준의 연소득으로 중간 수준 가격의 주택을 구입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며 주거비 부담을 파악하는 지표로 활용

### < 전국 PIR 추이 >

구분	'16년	'17년	'18년
주택가격동향조사 (한국감정원)	3.8	4.1	4.0
주거실태조사(국토연구원)	5.6	5.6	5.5

\* 주거실태조사 : (소득) 자가가구의 중위소득, (주택가격) 자가가구의 중위 주택가격 기준  
 \* 주택가격동향조사 : (소득)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3분위 소득 (주택가격) 한국감정원 주택가격동향조사 3분위 주택가격

○ 소득 1분위와 주택가격 1분위를 기준으로 비교해보면, '16년 이후 PIR은 4 내외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

\* 1분위 소득 대비 1분위 주택가격(PIR) : ('16) 3.5 ('17) 3.6 ('18) 4.3

○ 저소득 가구의 생애 최초 주택마련에 소요되는 기간도 '12년 10.1년에서 '18년 7.9년으로 대체로 감소하고 있습니다.

### < 저소득 가구의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기간 (주거실태조사 기준) >

'12년	'14년	'16년	'17년	'18년
10.1년	8.1년	7.9년	7.7년	7.9년

\* 저소득 가구는 주거실태조사에서 조사된 가구소득 10분위수를 기준으로 하위 1~4분위에 속하는 가구

□ 정부는 저소득·서민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복지 로드맵(‘17.11), 취약계층·고령자 주거지원 방안(‘18.10) 등을 통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\*을 역대 최대수준으로 확대하고 있고, 주거급여 등 주거비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.

\* 정부별 공공임대 공급실적 및 계획 :

(노무현정부) 39만호 (이명박정부) 46만호 (박근혜정부) 56만호 (문재인정부) 69.5만호

\*\* 장기공공임대 재고는 '17년말 기준 136.5만호(영구 21.7만, 50년 10.9만, 국민 52.4만호 등)이며, 주거급여는 '19.8월 기준 101.3만가구를 지원하고 있음

□ 또한, 서민·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그간 9.13 대책, 수도권 30만호 공급 확대 등을 통해 과도한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양질의 주택공급에 힘쓰고 있습니다.

○ 그 결과, 지난 9.13대책 직전 1년간 8.53% 오르던 서울 집값은 이후 1년간 1.27% 하락하는 등 시장 안정 효과가 있었으며, 서울의 청약 당첨자 중 97.3%가 무주택자에 이르는 등 시장이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.

□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집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실수요 중심의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고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도 지속 강화해나갈 것입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 (조선, 10.8 등) >

◆ 저소득층 내집마련에 21년 文정부 들어 4.7년 늘어나

- 저소득층 서민 가구가 내집을 마련하는데 평균 21.1년이 걸려
- 문재인 정부 들어 최근 2년 새 4.7년 늘고 고소득층과의 격차도 벌어짐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임유현 사무관(☎ 044-201-4129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